

11-02

통권 8호



환경-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2011년 7월 4일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HRI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 제 8회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기획 조사 결과	22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29

○ 경제적 행복지수 종합 평가

- 올해 초부터 계속된 소비자물가의 상승으로 2011년 상반기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9.4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이 모두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전반적 행복감도 크게 하락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11년 상반기에 129.8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고물가,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 등 국내외 불안요인의 해소 여부가 관건
- 실물 경기 회복으로 크게 축소됐던 남녀 간 행복지수 격차는 체감경기의 악화로 다시 크게 벌어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 대졸 이상 전문직의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부문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지역별 :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경북이 45.1(+3.2)로 가장 높았음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0년 하반기 42.7에서 2011년 상반기 39.5로 3.2p 하락하였음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라 경북(45.1), 강원(42.6), 경기(41.9), 울산(41.8)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전북(36.3)과 경남(35.8)의 행복지수는 가장 낮았음
- 직업별 :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전문직과 공무원의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체감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함
 - 직업별 추이를 보면, 자영업자가 전기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여전히 가장 높았음

- 한편, 전문직, 공무원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유지되었으나 기타/무직군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저소득층 무직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임
- **연령별 : 20~30대는 상대적으로 행복감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의 행복감은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 반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40~50대의 행복지수가 크게 낮아져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졌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있어서도 전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50대 이상에서 더 크게 하락하여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및 자산별 : 모든 계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한 가운데 고소득·고액 자산가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수준으로 서열화 됨**
 - 전체 소득 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 격차는 더욱 커졌음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양극화와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2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짐
- **학력별 : 고학력자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고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 자세를 유지**
 - 전 학력별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저학력자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회 연속 상승했던 고졸 이하의 행복지수가 이번 조사에서는 하락하였고,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도 낮아져 경기 회복이 고학력자의 경제 상황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혼인상태별 : 미혼, 이혼, 사별을 포함한 '싱글'의 행복감이 기혼자보다 더 높았음**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4.2로 가장 높았고 기혼자의 행복지수는 38.0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기획조사 결과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약 85%가 실질적인 경기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원인은 전세가 급등, 가계부채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임
 - 특히, 서울, 부산, 경기의 거주자들은 자산가치 하락이 경기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직업별로는 내수 경기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가 주원인으로 작용
 - 또한, 실질적 경기 회복은 2013년 이후로 보는 보수적인 시각이 우세
- 우리 국민들은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물가 급등, 세계경제 불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지적함
- 한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는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지속,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급등하고 있는 물가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도록 관세 등의 인하 검토, 하반기 예정된 공공요금의 인상도 단계적으로 조절 필요
-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최근 고용상황 개선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만큼 물가 관리 강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
 - 특히,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파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제8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중립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와 '아니다'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가 60% 이고 '아니오'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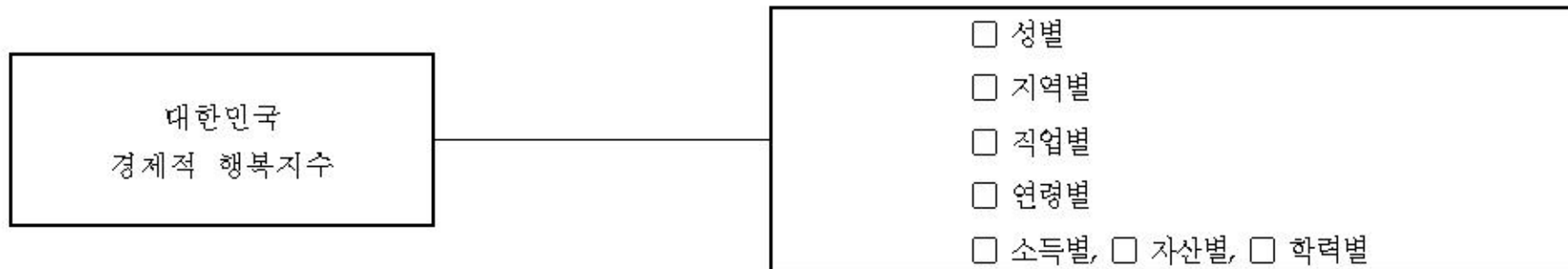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①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②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③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④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⑥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11년 5월 23일 ~ 6월 3일(12일간)
- 조사 주최 :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29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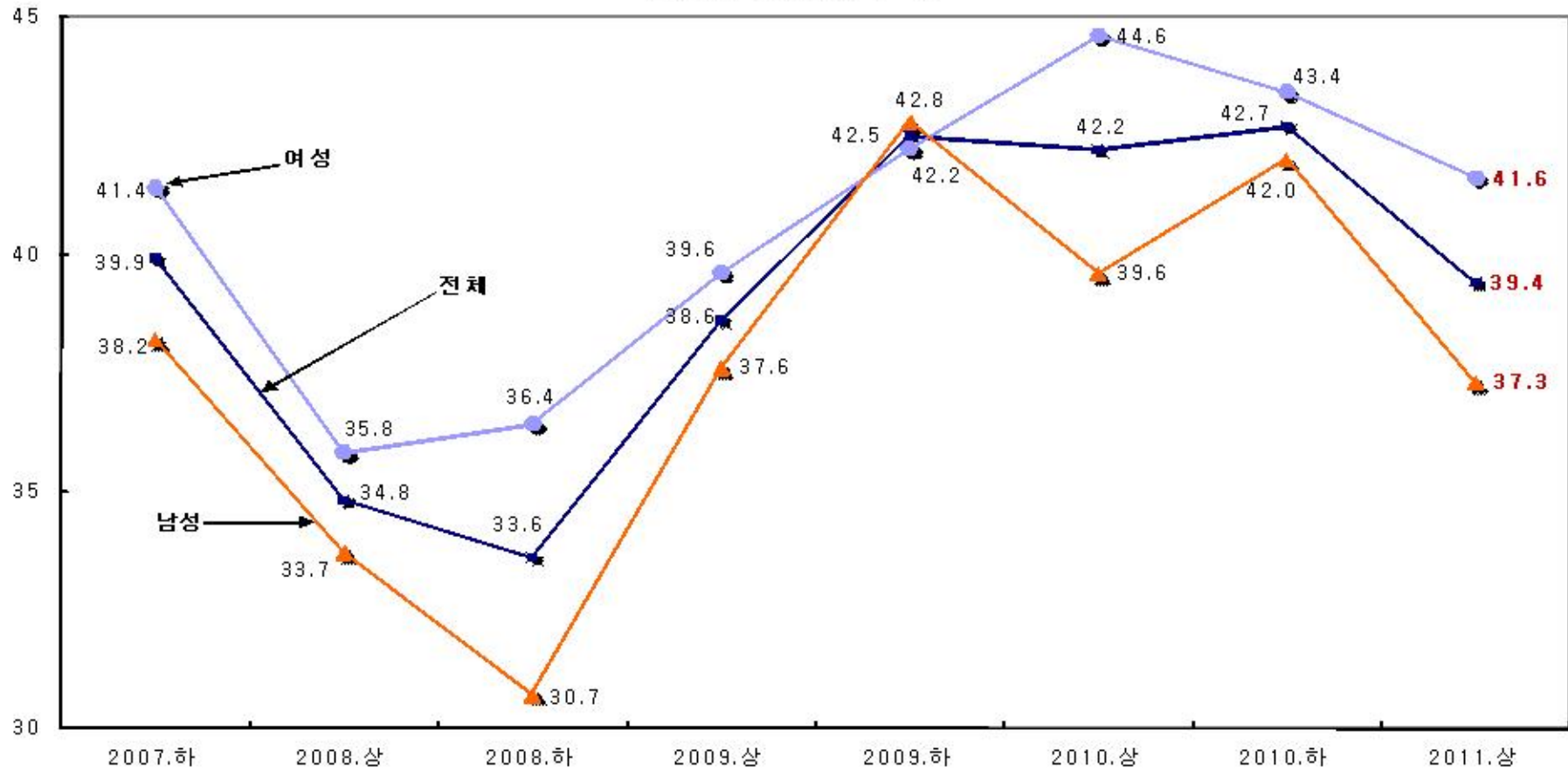
○ 결과 분석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 (종합평가)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물가 상승세와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39.4로 지난 조사(2010년 12월)보다 3.3p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기 대비 17.8p 하락하면서 미래에도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확대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승한 경제적 행복지수는 5회~7회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상반기 8회 조사에는 39.4로 전기대비 3.3p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2009년 상반기(제 4회) 수준으로 떨어짐
 - 수출 호조와 고용 증가세로 인한 안정적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부담 가중,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부동산 PF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 지표의 안정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생활의 악화가 실물-체감 간 경기 격차를 계속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남녀별로 보면 여성의 행복지수가 41.6으로 전기대비 1.8p 하락하였고 남성은 37.3으로 4.7p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09년 상반기의 37.6보다 더 낮아졌고 남녀간 격차도 4.3p로 재차 확대되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3회 조사부터 전기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유지되었지만 금번 2011년 상반기(8회) 조사에서는 전기대비 17.8p 대폭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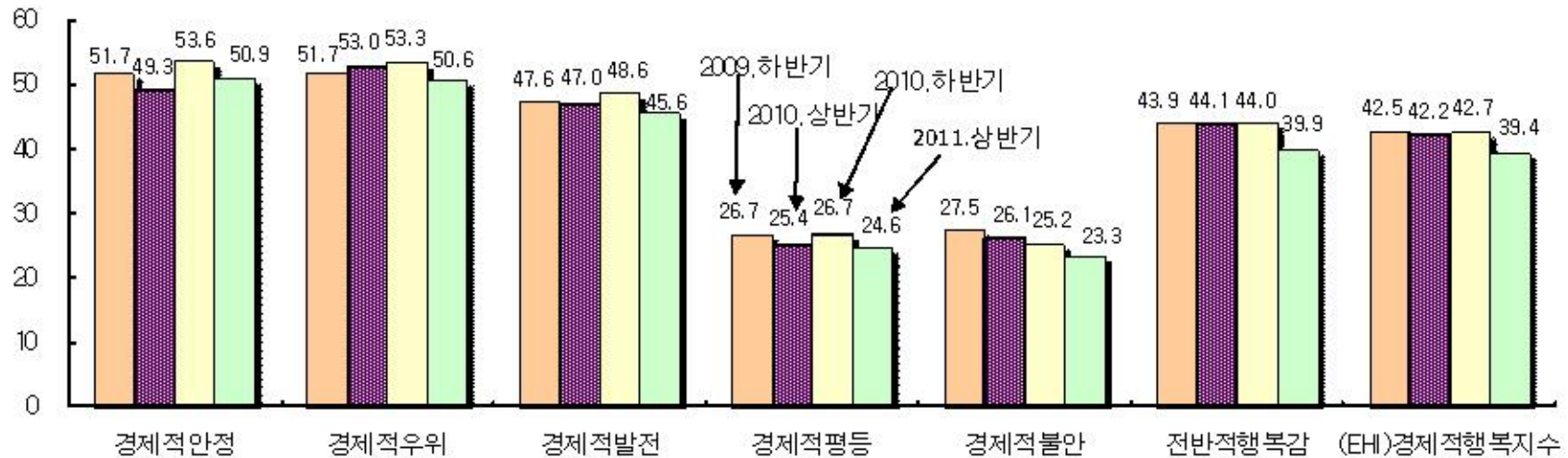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 추이 >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크게 낮아져 2009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구성 요소의 각 항목별 수치들도 모두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우선, 경제적 행복지수가 7회 조사 보다 3.3p 하락하며 39.4를 기록함. 각 항목별로는 일자리,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이 2.7p 하락하였고, 경제적 상위 2.7p 경제적 발전 3.0p, 경제적 평등 2.1p, 경제적 불안도 1.9p 하락하면서 경제적 만족도의 하락에 영향을 줬고 이에 인해 전반적 행복감은 4.1p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속된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 대외적 불안요인의 확대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의 147.6f에서 129.8로 하락하면서 2009년 상반기 수준으로 낮아졌음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17.8p 하락한 129.8을 기록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¹⁾
 - 2010년 하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5p 상승한 42.7를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도 1.2p 상승하여 147.6를 기록하면서 향후 경제적 상황이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었음
 - 그러나, 2011년 상반기 조사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3p 하락한 39.4를 기록하였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 역시 17.8p 하락한 129.8을 기록하여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제적 행복감이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물가 상승, 저축은행 사태, 금리인상으로 부채 상환능력 악화 등의 대내적 불안 요인과 유로존 재정위기 재부상, 선진국 경기 회복세 미흡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경제적 행복감은 금융위기 직전의 2009년 상반기 수준으로 낮아짐
 - 아울러, 2011년 하반기에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 미래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내외적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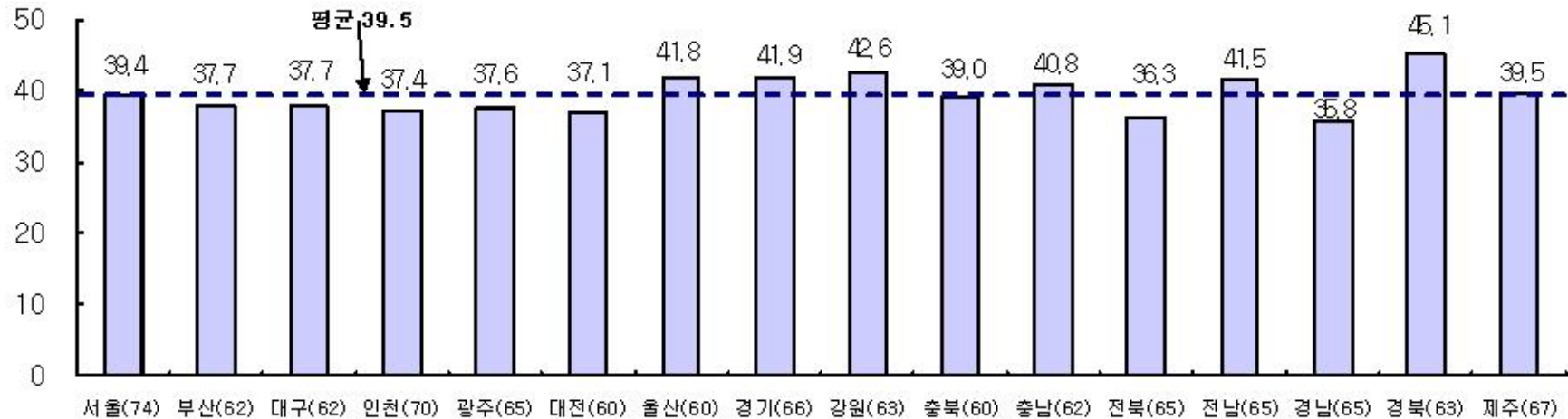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2008. 하반기	2009. 상반기	2009.하반기	2010.상반기	2011.상반기	2011.하반기
남 성	135.1	115.0	121.6	127.8	139.8	142.8	140.6	122.0
여 성	137.0	131.1	129.2	129.6	148.2	149.6	153.8	137.4
전 체	136.0	123.1	125.6	128.8	144.2	146.4	147.6	129.8

1)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지역별)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기대비 전반적 하락세 속에서 경북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평균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0년 하반기 42.7에서 2011년 상반기에는 39.5로 3.2p 하락함
 - 지역 평균 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시도는 경북, 강원, 경기, 울산, 전남, 충남 순임
 - 한편, 서울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반기보다 크게 하락하였고 평균대비로도 0.1p 낮았으며, 5대 광역시도 평균대비 모두 낮아 대도시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동차, IT, 철강 등의 경쟁력이 경기회복에 따라 관련 산업체가 밀집된 경북은 물론 경기, 울산, 충남 등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편임
 - 전반적인 행복지수의 하락세에도 자동차, IT, 철강 등의 수출 호조세 등으로 강원, 경기, 울산 지역의 행복지수가 높았음
 - 경북에 이어 강원 42.6, 경기 41.9, 울산 41.8 순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2011년 상반기에는 경남의 경제적 행복감이 35.8로 가장 낮았음
 - 경제적 행복지수가 12위로 조사된 경북과 강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크게 낮아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경북 119.4, 강원 129.0으로 크게 낮았으나 3위와 4위를 기록한 경기와 울산, 전남은 각각 157.6, 146.6, 144.6으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보여 지역 간 편차가 커짐
 - 한편, 경남, 전북등 경제적 행복지수가 낮은 지역은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낮아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보임

<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8.6	48.0	46.8	46.4	44.2	45.4	57.5	53.0	57.9	51.3	50.4	48.8	51.2	49.2	59.1	56.3
경제적 우위	47.3	49.2	47.2	50.4	44.6	51.7	52.9	45.8	57.3	49.2	56.0	50.4	47.7	49.6	55.2	56.0
경제적 발전	48.3	43.5	38.3	46.1	50.8	31.3	47.1	47.0	53.2	47.1	52.4	43.5	48.8	40.0	45.2	45.9
경제적 평등	26.4	21.8	35.9	26.1	23.5	24.2	22.5	26.5	23.0	23.3	26.6	22.7	21.2	21.5	23.0	25.4
경제적 불안	24.3	16.5	27.8	33.2	16.5	22.5	21.7	23.1	29.4	22.9	25.0	20.8	19.2	17.3	30.6	21.3
전반적 행복감	39.9	39.5	36.3	34.3	39.2	39.2	43.3	44.7	42.1	39.2	39.5	35.4	45.4	36.2	47.6	38.1
경제적 행복지수	39.4	37.7	37.7	37.4	37.6	37.1	41.8	41.9	42.6	39.0	40.8	36.3	41.5	35.8	45.1	39.5
지역별 순위	8	10	10	13	12	14	4	3	2	9	6	15	5	16	1	7
경제적 행복 예측	124.4	132.2	119.4	118.8	129.2	96.6	146.6	157.6	129	153.4	122.6	120	144.6	117	119.4	145.4



○ (직업별)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기 변동성을 크게 느끼는 자영업자의 행복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과 공무원의 경제적 만족도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상반기 기타/무직군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하였음

· 가장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직업군은 전문직으로 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49.8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고, 공무원도 전기대비로는 1.8p 하락하였으나 48.4로 타 직업군 대비 높은 경제적 행복감이 유지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문직이 전기대비 20.6p 하락하였으나 157.2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공무원은 전기대비 30.2p 하락하여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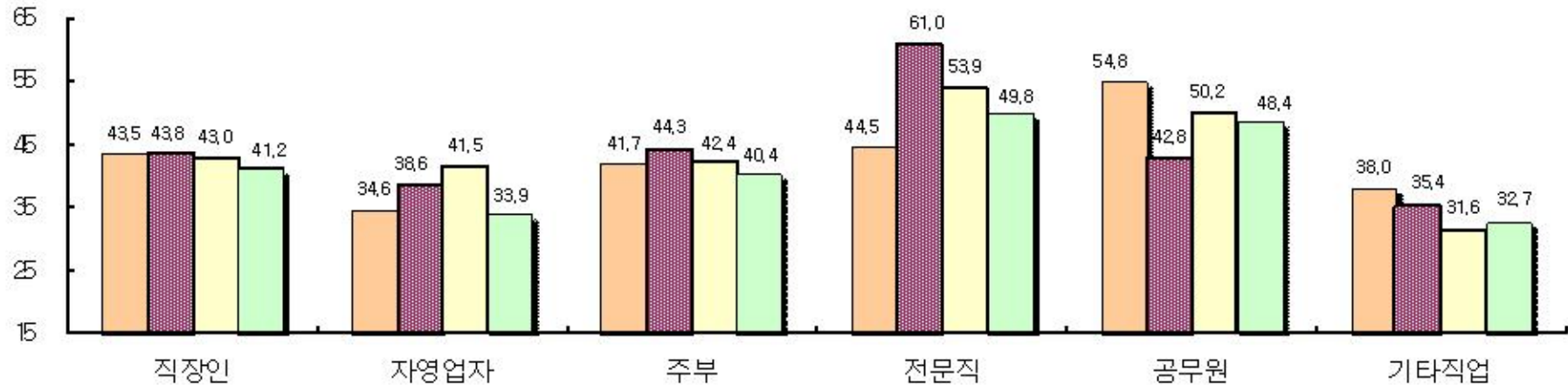
- 체감 경기가 악화되면서 자영업자의 행복지수 가장 크게 하락

·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7.6p 하락한 반면, 기타/무직군은 1.1p 상승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자영업자의 경우 7.7p 하락하였으나 기타/무직군은 9.6p 상승하였음. 한편 물가 상승과 서민 금융기관의 디폴트로 인해 자영업자, 주부, 공무원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직업²⁾별 경제적 행복지수 >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무직	
경제적 안정	54.5	1.1	40.5	▽6.2	51.4	▽1.8	69.6	0.2	75.2	2.0	33.1	▽8.8
경제적 우위	50.8	▽3.4	44.7	▽1.9	54.5	▽1.7	53.6	▽21.4	61.2	0.2	43.7	1.3
경제적 발전	52.7	▽3.0	36.4	▽9.0	43.8	4.5	48.2	▽7.4	60.0	▽2.4	28.9	7.7
경제적 평등	24.0	▽2.9	24.3	▽6.0	24.5	2.0	26.8	▽3.8	19.0	▽4.4	31.3	▽2.2
경제적 불안	25.3	▽1.1	21.6	▽3.6	17.3	▽4.8	32.1	1.5	30.7	1.3	21.9	1.6
전반적 행복감	40.9	▽1.9	34.7	▽9.4	42.6	▽3.5	53.6	▽2.0	47.6	▽2.8	33.7	2.3
경제적 행복지수	41.2	▽1.8	33.9	▽7.6	40.4	▽2.0	49.8	▽4.1	48.4	▽1.8	32.7	1.1
경제적 행복 예측	139.8	▽19.4	128.2	▽7.4	123.4	▽20.0	157.2	▽20.6	127.6	▽30.2	111.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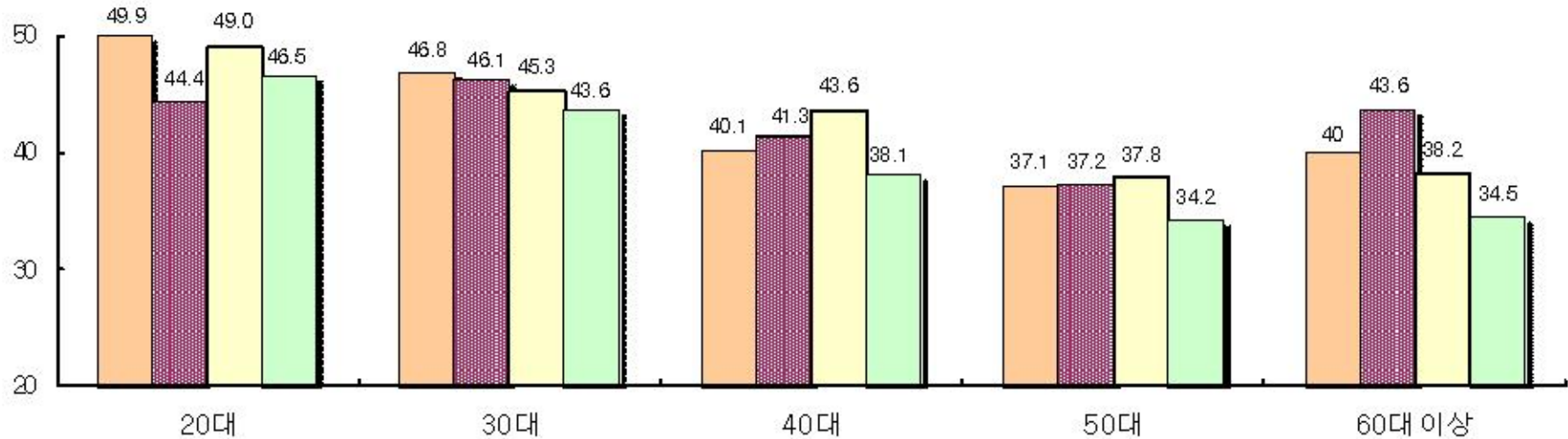


2)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9년 상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연령별) 20-30대의 행복감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아짐
 - 연령대를 기준으로 2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고, 50세 이상의 고령층의 행복감은 낮음
 -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음
 -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20대의 행복지수도 전기대비 25p 하락하였고 특히 5회 조사 이후 계속 상승하던 40대의 행복감이 전기대비 5.5p 크게 낮아졌음. 또한, 30대의 경제적 행복감도 5회 이후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전세가 급등과 물가 급등으로 인해 가계의 지출이 많은 40대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층도 노인 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의 부재 등으로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대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 연령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50대의 하락폭이 29.2p로 가장 높았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의 경우 전기대비 11.4p 하락하였으나 161.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30대가 전기대비 18.2p 하락한 150.0으로 보다 여타 연령층 대비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였음. 반면 이번 조사에서 60대 이상은 84.8로 전기대비 22.8p 하락하면서 100 아래로 하락하며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

<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48.3	▽9.8	59.2	2.6	53.4	▽1.7	46.0	▽4.0	38.9	▽6.3
경제적 우위	54.3	▽2.5	54.3	▽1.1	49.4	▽3.2	45.4	▽6.6	50.2	1.0
경제적 발전	58.1	▽3.5	57.2	▽2.6	45.5	▽6.5	35.1	▽1.1	24.6	▽2.1
경제적 평등	30.0	0.4	20.0	▽2.3	22.2	▽3.2	25.8	▽1.3	31.5	▽3.8
경제적 불안	34.5	4.0	24.7	▽4.1	20.8	▽4.2	18.6	▽2.4	21.0	1.0
전반적 행복감	47.9	▽2.9	44.3	▽1.7	37.9	▽7.3	34.3	▽3.9	35.7	▽5.5
경제적 행복지수	46.5	▽2.5	43.6	▽1.7	38.1	▽5.5	34.2	▽3.6	34.5	▽3.7
경제적 행복 예측	161.4	▽11.4	150.0	▽18.2	130.2	▽11.0	108.6	▽29.2	84.8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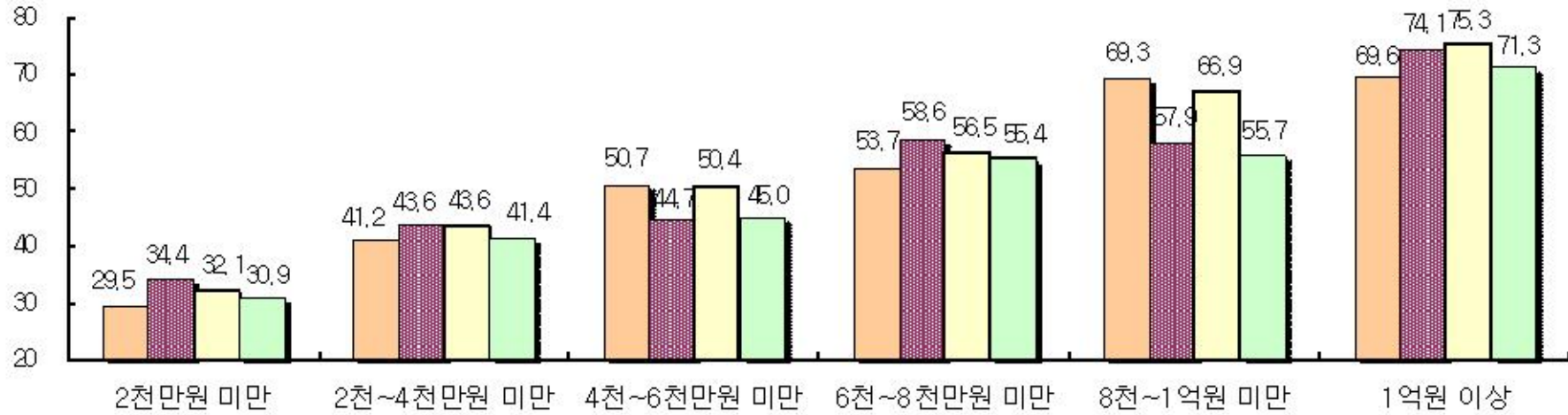
○ (소득 및 자산별) 전체 소득 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가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였으며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그 격차는 더욱 커졌음

- 소득별로도 전체 계층의 경제적 행복감과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이 모두 하락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고소득자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고 저소득자일수록 낮음. 전기대비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아진 소득계층은 연간 8천~1억원 미만 소득자로 이들은 2011년 상반기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한 전세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됨
- 또한, 4천~6천만원 미만의 중위 소득자와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경제적 행복감도 전기대비 각각 5.4p, 4.0p 떨어졌고 6천~8천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제적 행복감의 하락폭이 가장 작았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도 6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의 중고위 소득자들의 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33.0p와 23.6p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보임

<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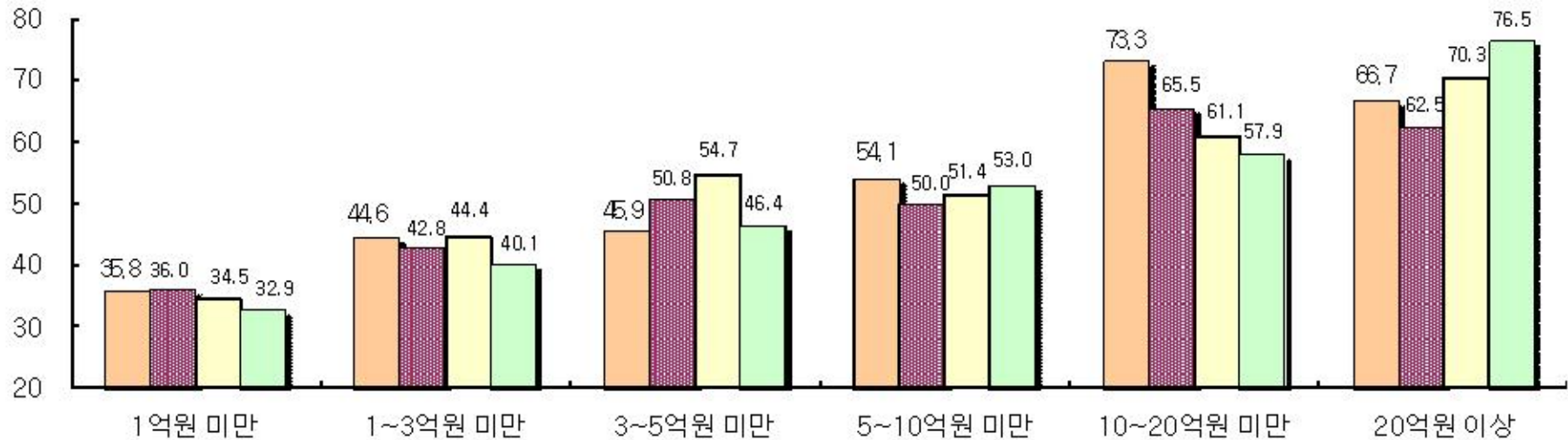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2.3	▽3.0	55.9	▽1.4	67.1	0.9	76.8	4.4	82.4	▽4.4	85.4	▽4.6
경제적 상위	39.1	▽0.7	51.7	▽2.7	60.4	▽1.2	77.7	2.3	72.1	▽2.2	83.3	▽3.4
경제적 발전	33.3	0.5	50.0	▽2.5	51.9	▽7.7	70.0	6.4	63.2	▽16.2	72.9	1.2
경제적 평등	27.0	▽1.4	23.5	▽1.0	22.5	▽6.2	21.8	▽3.6	32.4	8.9	16.7	▽20.0
경제적 불안	20.1	▽0.7	23.6	▽0.8	24.6	▽4.9	30.5	3.3	27.9	▽19.2	58.3	6.6
전반적 행복감	31.4	▽1.5	42.0	▽2.6	44.7	▽7.0	55.5	▽4.8	55.9	▽11.7	79.2	▽4.1
경제적 행복지수	30.9	▽1.2	41.4	▽2.2	45.0	▽5.4	55.4	▽1.1	55.7	▽11.2	71.3	▽4.0
경제적 행복 예측	120.0	▽14.2	134.4	▽13.6	138.4	▽22.0	134.6	▽33.0	141.2	▽23.6	163.6	▽9.8



- 자산별로는 부동산 경기 양극화와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20억 원 이상 고액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짐
- 고액자산가 일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고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는 5억원 미만의 중저위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이 모두 하락한 반면, 5~10억원과 20억원 이상의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은 각각 1.6p와 6.2p 상승하였음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0~20억 원 미만의 자산가의 경우 전기대비 2.8p 상승하였을 뿐 그 외 전체 자산계층의 미래 경제 상황 지수는 전기대비 모두 하락함

<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40.6	▽1.6	53.6	▽2.7	61.3	▽5.4	66.4	▽5.0	78.1	▽3.8	85.0	▽5.6
경제적 우위	42.0	1.2	52.4	▽4.9	59.4	▽5.5	65.4	▽5.2	71.9	▽1.0	90.0	▽6.9
경제적 발전	37.7	▽3.6	48.9	▽3.5	54.1	▽0.5	52.5	▽1.1	56.3	▽4.8	80.0	11.2
경제적 평등	23.5	▽2.7	24.5	▽1.1	26.3	▽4.2	26.6	▽2.5	40.6	18.4	5.0	▽16.9
경제적 불안	21.3	▽0.5	21.1	▽5.2	29.7	▽0.4	31.1	7.3	30.2	▽0.4	55.0	5.0
전반적 행복감	32.9	▽1.6	40.0	▽5.3	46.6	▽13.3	58.2	5.0	60.4	▽6.3	90.0	15.0
경제적 행복지수	32.9	▽1.6	40.1	▽4.3	46.4	▽8.3	53.0	1.6	57.9	▽3.2	76.5	6.2
경제적 행복 예측	126.2	▽10.4	124.2	▽29.6	144.6	▽14.2	146.6	▽1.8	158.4	2.8	160.0	▽15.0



○ (학력별)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고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자세가 유지

- 전 학력별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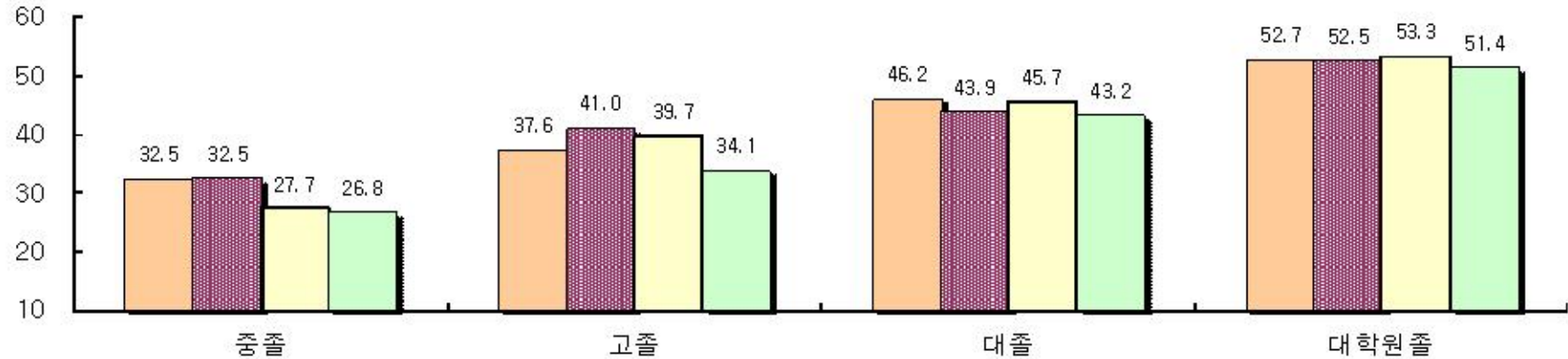
- 대졸, 대학원졸 고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기대비 각각 2.5p, 1.9p 하락하였지만 저학력자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한편,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위기 이후 경제 회복기에 오히려 하락하였고 금번 조사에서도 전기대비로 중졸 학력자는 0.9p, 고졸 학력자도 5.6p 가 하락함

- 저학력자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졸 이하 학력자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28.2p 하락하여 826을 기록하였고 고졸 이하도 21p 하락한 119.6으로 저학력자들은 2011년 하반기에도 그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27.6	▽3.1	42.8	▽5.2	57.3	▽1.1	68.6	▽2.6
경제적 우위	39.9	5.9	46.1	▽3.3	53.7	▽3.4	62.2	▽3.8
경제적 발전	24.8	3.1	36.3	▽5.4	52.7	▽2.6	57.4	▽1.1
경제적 평등	30.3	▽1.9	25.1	▽3.1	23.8	▽1.8	20.7	▽0.5
경제적 불안	18.3	5.0	19.2	▽4.2	25.8	▽1.8	28.2	▽0.1
전반적 행복감	25.5	▽3.4	34.2	▽7.0	43.9	▽2.7	55.3	▽2.2
경제적 행복지수	26.8	▽0.9	34.1	▽5.6	43.2	▽2.5	51.4	▽1.9
경제적 행복 예측	826	▽28.2	119.6	▽21.0	141.0	▽13.4	152.2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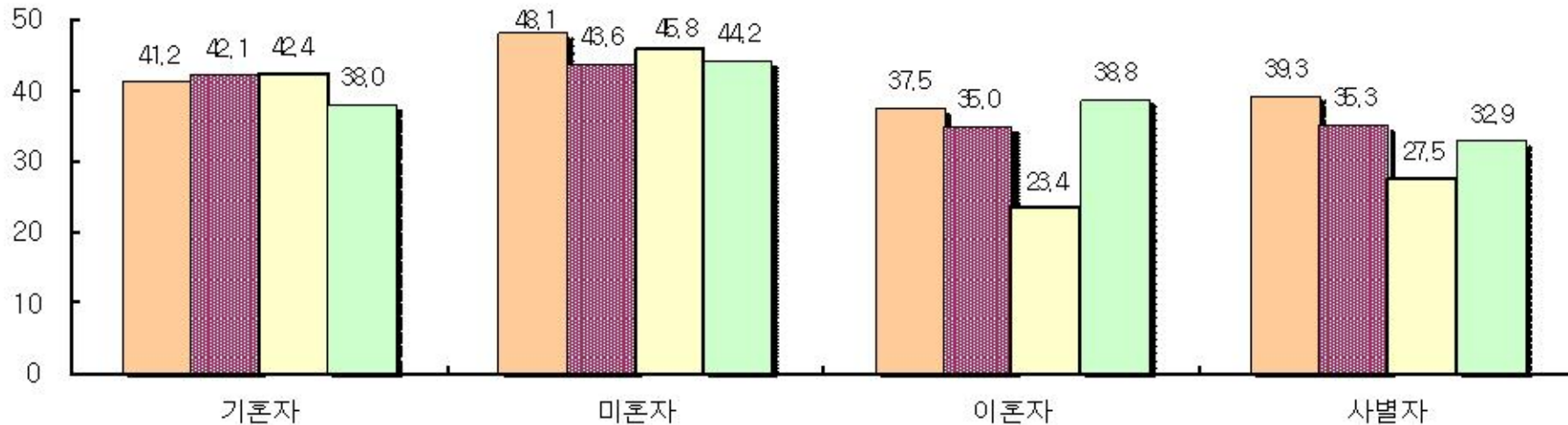


○ (혼인 상태별) 미혼자와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 소폭 하락했으며 상대적으로 미혼자의 행복감이 높은 수준을 유지

- 기혼자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하였고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게 높아짐
-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44.2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 1.6p 하락하였고 지난 5회 조사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기혼자의 경제적 행복감도 38.0로 4.4p 떨어짐. 반면 이혼자와 사별자는 38.8과 32.9로 경제적 행복감이 낮았으나 전기대비로는 오히려 상승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혼자가 143.8로 가장 높았으나 전기대비로도 20.6p 크게 떨어졌고 기혼자도 127.4를 기록하면서 이들 모두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임
- * 금번 8회 조사에서 이혼자의 표본수가 단 2명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50.7	▽3.1	52.2	▽3.8	50.0	21.9	43.8	23.0
경제적 우위	49.5	▽4.6	54.2	1.3	37.5	6.2	48.8	9.2
경제적 발전	42.2	▽4.5	56.9	▽1.3	100.0	68.7	28.8	14.2
경제적 평등	23.7	▽2.3	26.5	▽2.2	50.0	25.0	33.8	8.8
경제적 불안	20.6	▽3.6	31.3	1.6	25.0	0	23.8	15.5
전반적 행복감	38.8	▽5.0	44.3	▽2.4	25.0	6.2	30.0	▽3.3
경제적 행복지수	38.0	▽4.4	44.2	▽1.6	38.8	15.4	32.9	5.4
경제적 행복 예측	127.4	▽15.4	143.8	▽20.6	200	25.0	40	▽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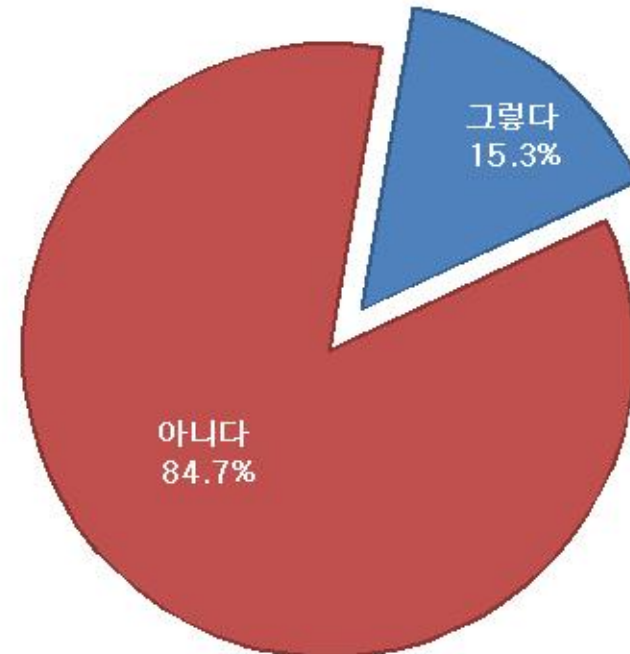


3. 기획 조사 결과

○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 경기 회복을 느끼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 지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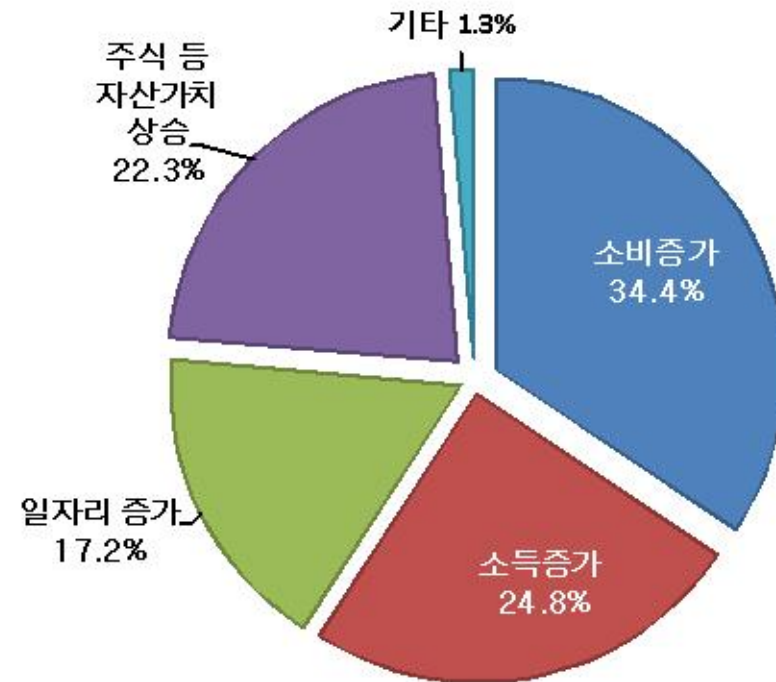
- 전체 1,029명의 응답자 중에서 872명(84.7%)이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이보 불구하고 경기 회복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157명(15.3%)만이 실물 경제가 회복에 따라 체감 경기도 회복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 2011년 상반기 수출호조와 일자리 증가 등 국내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물가 급등, 저축은행 부실 등의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악화, 전세가 상승 지속, 금리 상승 등의 대내적 요인과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의 해외 불안요인까지 더해져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153%는 소비 및 소득증가를 주요인으로 선택

-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면 어느 부문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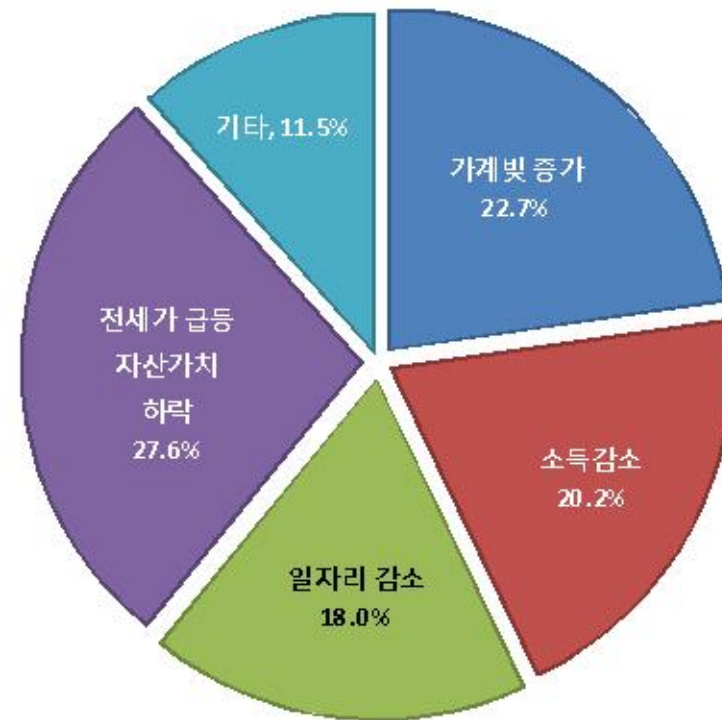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157명의 응답자 중에서 54명(34.4%)이 소비증가, 39명(24.8%)은 소득 증가로 인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함
- 전체 응답자 중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 '일자리 증가', '기타' 의견은 각각 22.3%, 17.2% 및 1.3%로 조사됨
-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연간 6천만원 이하, 자산 5억원 미만의 중산층 이하 계층이며 직업별로는 주로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들로 나타남. 주식 시장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2011년 들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전세가 급등 등 자산가치 하락, 가계 부채 증가 등이 체감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임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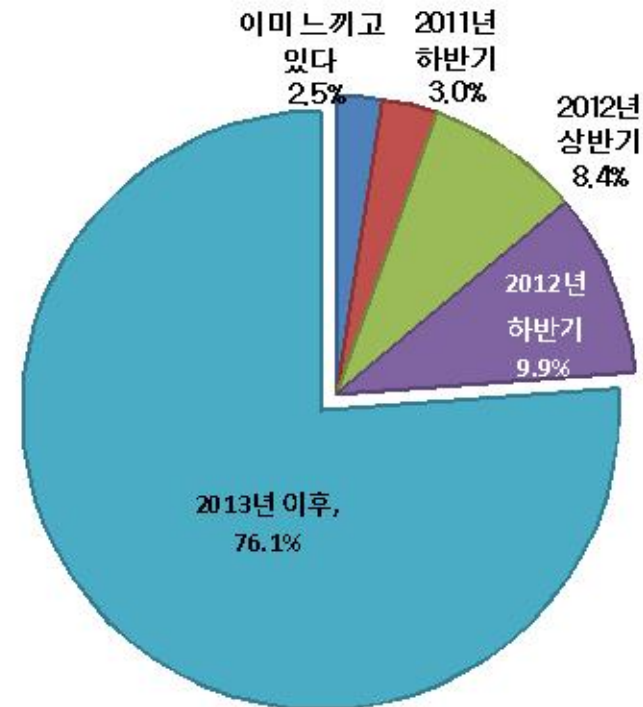
-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한 872명 중에서 241명(27.6%)이 전세가 급등 등 자산가치 하락이 체감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가계부채 증가(22.7%)', '일자리 감소(18.0%)', '소득 감소(20.2%)'가 비슷한 비중으로 경기 회복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경기 회복감을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자산가치 및 소득과 깊게 연관되었고, 가계부채 증가와 일자리 증감 과도 연관성이 높음. 서울, 부산, 경기의 거주자들은 자산가치 하락이 경기회복감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고, 직업별로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소득감소가 주원인이라고 응답하였음



○ 우리 국민들의 76.1%는 2013년 이후에나 체감 경기가 실질적인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

- 언제쯤 체감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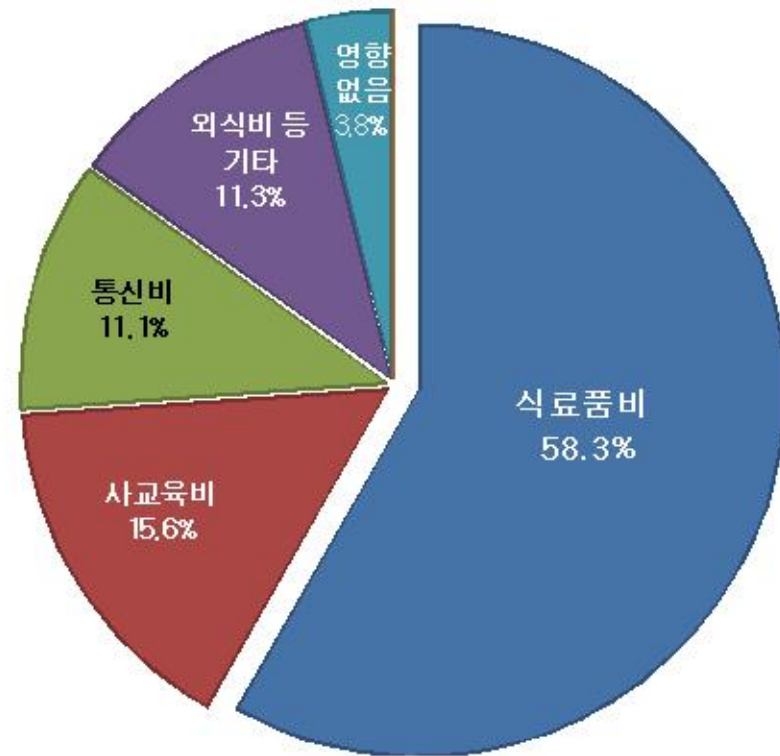
- 전체 1,026명의 응답자 중에서 781명(76.1%)이 2013년 이후에나 우리 경제가 나아져 가계의 경제 상황도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2012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1년 하반기'는 각각 9.9%, 8.4% 및 3.0%였고 '이미 느끼고 있다'고 있다는 2.5%에 불과하여 체감경기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도 실질적인 회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수출 호조, 환율 하락 등 대외적인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내내 지속된 내수 부진, 전세가 불안 및 물가급등 등의 서민경제 불안요인이 더 많아지면서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본격적인 체감경기 회복은 201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보수적인 의견을 나타냄



○ 높은 물가 상승률은 가계의 식료품비, 사교육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됨

- 2011년 상반기 높은 물가상승률로 귀하는 어느 부분의 소비에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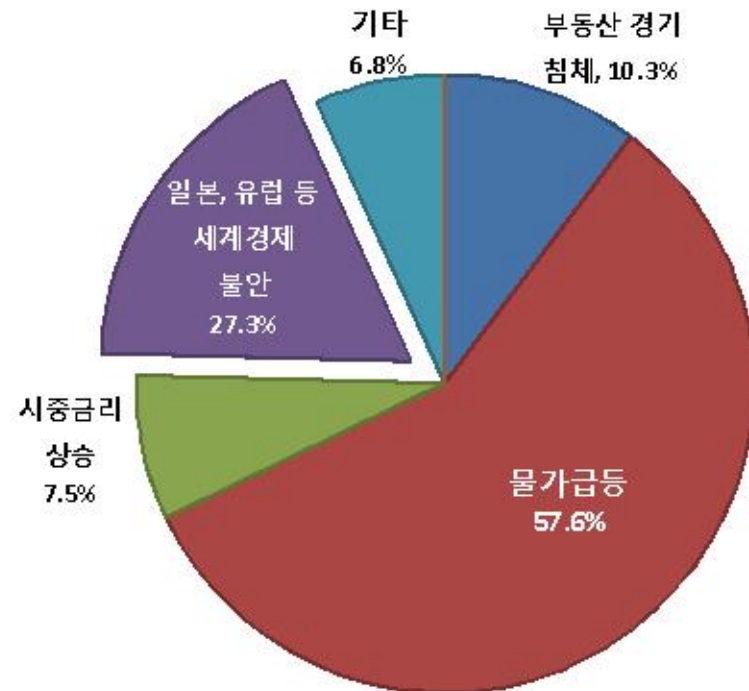
- 상반기 4%대의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체 1,028명 중에서 599명(58.3%)이 식료품비, 160명(15.6%)은 사교육비의 지출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통신비', '외식비 등 기타'는 각각 11.1%, 11.3%였고 '영향없음'은 3.8%에 불과하여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 지출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됨
- 2011년 상반기 국제 원자재가 상승, 구제역 발생 및 이상기후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계들은 식료품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거나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 소비를 위축시켰던 것으로 보임. 특히, 식료품비 등 기초 생활 소비의 위축은 체감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물가 급등, 세계 경제 불안 지속 등이 2011년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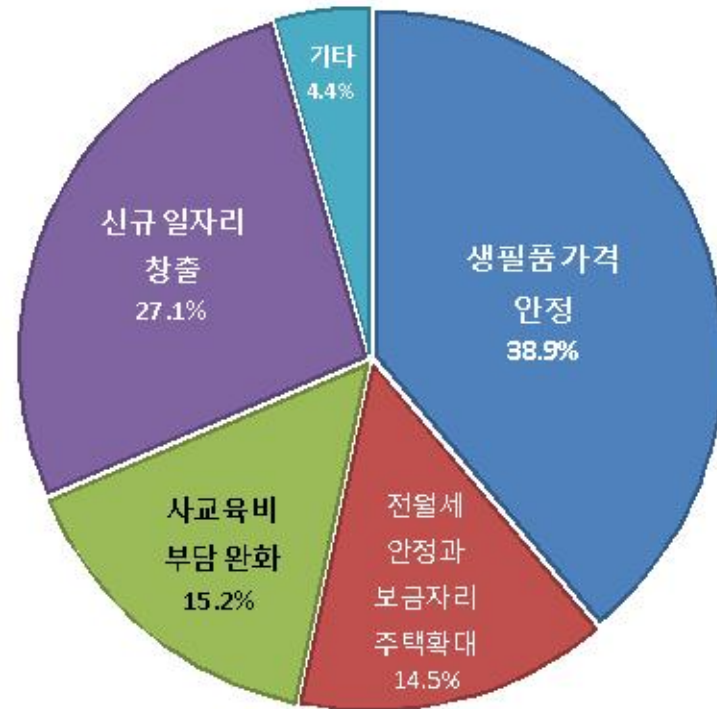
- 전체 1,024명의 응답자 중에서 590명(57.6%)이 2011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물가 급등을 꼽았고, 280명(27.3%)은 유럽·일본 등의 세계 경제 불안 지속이 국내 경제의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전체 응답자 중 '부동산 경기 침체', '시중금리 상승', '기타'는 각각 10.3%, 7.5%, 6.8%로 하반기 국내 경기 위협요인으로 생각함
- 2011년 상반기 물가급등은 서민경제의 지출을 위축시키고 체감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하반기에도 물가 급등이 국내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지속과 일본 등 선진국 경기 하방 압력도 국내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



○ 생활물가 안정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 2011년 하반기에도 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임

- 2011년 하반기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1,027명의 응답자 중에서 400명(38.9%)이 저소득층 생필품 가격 안정, 278명(27.1%)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 2011년 하반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전월세 안정과 보금자리 주택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자는 각각 14.5%, 15.2%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경제 행복감 제고와 실물·체감경기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 안정과 신규 일자리의 창출력을 제고시키고 이외에도 전월세 안정화 대책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2011년 6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전문직 미혼 20대 여성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경북, 강원, 울산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하락하였음
 - 그러나 이들도 현재 경제적인 행복과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 모두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저학력의 50대 이상의 남자로서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무직자로 추정됨
 -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하락하였고 전반적인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낮아져 이들은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물가 상승세와 실물-체감 경기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39.4로 지난 조사(2010년 12월)보다 3.3p 크게 하락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전기대비 17.8p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경제적 행복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승한 경제적 행복지수는 5회~7회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상반기 8회 조사에는 39.4로 전기대비 3.3p 크게 하락하며 금융위기 직전의 2009년 상반기(제 4회) 수준으로 떨어짐
 - 수출 호조와 고용 증가세로 인한 안정적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 부담 가중,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부동산 PF사태에 따른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악화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하락시킨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경제 지표의 안정적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생활의 악화가 실물-체감 간 경기 격차는 계속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3회 조사부터 전기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미래 경제 사정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 유지되었지만 금번 2011년 상반기(8회) 조사에서는 전기대비 17.8p 대폭 하락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많아졌음

- 물가 안정,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고령자 대책 등 친서민 정책이 강화될 때 국민들의 실물-체감경기 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실물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급등 등 자산가치 하락, 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가계의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실물-체감 간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 수출 호조, 신규 일자리 창출 제고에도 불구하고 내수·외수 경기 격차가 커지고 물가 상승폭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15.3%만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76.1%는 2013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체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이미 경기 회복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하였음
- 특히, 2011년 하반기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실물-체감경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필품 가격 안정, 전월세 안정 등 대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경제적 행복지수의 상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 첫째, 급등하고 있는 물가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국제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관세·세금을 인하하고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도 적절한 인상 수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고 단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식료품 가격의 변동성이 높아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유통단계 단순화 등의 개선이 필요

- 둘째,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고 노력도 지속되어야 함

- 최근 고용상황 개선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무직자,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지표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함에 따라 물가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 특히, 생활 물가 관리로 가계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주어야 하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파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조 호 정	선 임 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홍 유 림	전 문 연구원	(2072-6243, ylhong@hri.co.kr)